



## 가축분뇨의 자원화 문제점

### 1. 서론

**최** 근 우리는 '환경(環境)'이란 단어의 홍수속에 살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환경이란 단어의 의미가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우리 축산분야에 이 '환경(環境)'이란 말이 사용되면 의례이 오염, 공해, 폐수, 생태계 파괴 등의 부정적인 단어들과 연계되어 진다.

그러나 '환경(環境)'의 본래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축들이 살고 있는 주변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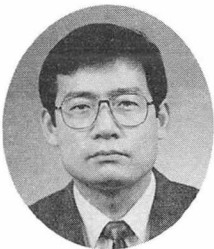
사람과 가축은 자연생태계의 일원으로서 공존공생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동물의 배설물은 토양으로 돌아가 토양미생물을 증식시켜 기름진 땅을 만들어 식물에 충분한 영양과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 식물은 섬유성 물질의 공급원으로 혹은 결실하여 동물

의 영양공급원으로 기능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순환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러나 자연생태계는 도처에서 수 많은 이유로 해서 훼손되고 파괴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는 결국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인류에 심각한 재앙을 던져주고 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대한 문제점을 따지면서 장황하게 자연생태계를 연계시키는 이유는 바로 동물의 배설물은 자연생태계 순환의 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맑은 물, 맑은 공기,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가축의 분뇨는 필수불가결의 자원이란 위치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삶의 편의를 위해서, 쉽고 편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마구 버렸던 가축분뇨가 이제 물을 더럽히고 냄새를 발산하면서 우리에게 되돌아 오게



김 두 환 농학박사

(진주산업대학교 국제축산개발학과 교수)

되었고 그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다.

우리 축산업계에 최근의 비중이 가장 큰 현안이 바로 이 가축분뇨의 처리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기술개발 및 대안제시로 가장 현명한 처리방법이 '자원화'라는 큰 흐름은 잡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막상 자원화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 정립이 미약하고 자원화에 각종 걸림돌이 도사리고 있다.

## 2. 자원화 문제점과 대책

지난 1994년 12월 가축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돼지사육두수는 595만 5천두로 6백만두를 육박하고 있으며, 돼지사육가구수는 54,235호로 전년 대비 22.9% 감소를 나타내었고,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는 110두로 상당한 규모확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1,000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는 가구수가 790호에 불과하나 전체 두수에서 차지하는 두수비율은 30%인 178만 8천두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양돈경영규모의 영세는 돼지분뇨의 자원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돼지분뇨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국민들로부터 기피하

66

### 생산자는 돈을 올

생산 공급하는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부정적인 요인인 분뇨의 처리대책에 투자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환경부, 농림수산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가 가장 확실한 처리대책임이 입증된 이상 이 부분에 많은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99

는 산업으로 몰리는 데 크게 기여한다 할 것이다.

이제껏 알려지고 설치 운용되고 있는 돼지분뇨의 처리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방안을 종합해 볼때 자원화하여 자연생태계의 정상적인 순환에 돌리자는데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이 막연한 자원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향제시와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는 미약하다.

본고는 양돈산업 현장에서 겪는 돼지분뇨의 자원화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식부족,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자원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가축의 분뇨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 악취는 우리 모두에게 불쾌감을 주고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무방비 상태로 투기하거나 흘려버리는 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물려 받은 이 자연은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잘 보전하고 가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중한 자원인 가축분뇨를 잘 활용해야만 하다.

둘째, 기술 부족이다.

자원화를 하고자 하여도 마땅히 선택할 경제적이고 완벽한 결과가 보장되는 처리방법 및 설비가 없다는 게 현실인 것이다.

축산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수십년간 연구하고 투자하여도 완벽하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앞으로 많은 투자와 연구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셋째, 제도의 미흡이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하고 주로 정화하여 방류하는 방법에 대한 규제 위주의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생산자 및 환경

관련 담당공무원들의 자원화에 대한 내용의 인지 부족 상태가 심각하여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잇달아 개정되고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은 보다 강화되었다.

제도상에 자원화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선에서는 세부규정이나 지침이 하달되지 않아 자원화(퇴비화)는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에서 '자가처리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자가처리규정은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축분퇴비 및 액비의 품질 기준 및 사용한계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기준이 미흡하여 자원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막대한 자금지원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는 개별농가의 비료화 사업, 축분비료공장 등에서 생산되는 많은 유기질 비료들이 품질과 가격면에서 일정한 기준이 없이 유통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축분유기질비료에 대한 불신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경종, 원예농업의 입장에서 질이 좋은 축분유기질비료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화학비료

위주의 영농관습으로 수확물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축분유기질비료의 수요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관리효율을 높이고 인력을 줄일 수 있다 하여 많이 보급되고 있는 슬러리 돈사에서 나오는 액상의 돈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탱크에 부숙시켰다가 살포하는 것이 좋은 처리방법일 것이나 장비, 부숙정도, 살포량 기준 등의 잣대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도 자원화 저해요인이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대한 투자가 현재까지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큰 걸림돌 중의 하나이다.

가축분뇨를 취급하는 기술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생산자 입장에서 골치거리인 분뇨를 처리하는 정도에서 만족해야지 분뇨에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될 것이란 기대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시설원에 단지나 초지를 인접한 지역은 가축분뇨가 귀중한 자원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반면 잘 만들어진 퇴비마저 처치곤란을 겪는 지역이 있다.

이러한 가축분뇨 자원화 저해요인을 극복할 대안을 생각

해 볼때 기존 생산자 단체나 협동조합을 잘 이용하면 효율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농협(원협)과 축협이 상호 도움을 받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축분유기질비료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해 나가면 자원화는 보다 활발해질 것이다.

###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몇가지의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다. 이제 분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양돈경영 자체가 불가능한 여건이 됨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실천에 옮기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생산자는 돈육을 생산 공급하는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부정적인 요인인 분뇨의 처리대책에 투자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환경부, 농림수산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가 가장 확실한 처리대책임이 입증된 이상 이 부분에 많은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산학관이 '자연환경보전', '자연생태계 복원' 및 '환경보전형 양돈산업'을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같이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